

# 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12. 28.(월) 17:00 (총 5매)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예 보 과	담당자	과장 김용상 사무관 심안섭	전화번호 062-720-0332

## 연말연시 광주, 전라남도 강추위·대설

- 12월 29일 밤~1월 1일 광주, 전라남도 강추위,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
  - 전남내륙 중심 체감온도 -10℃ 안팎, 1월 초순 강추위 지속
  - 건강관리·수도관 동파 유의, 장기간 이어지는 추위 대비 필요
- 광주, 전라남도: 10~20cm (많은 곳 전남서부 30cm 이상)
  - 눈길, 빙판길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!



[ 12월 30일 오후 예상 기압계 모식도 ]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이미선)은 내일(29일) 오후부터 광주, 전라남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연말연시(30일~1월 1일) 동안 강추위가 나타나겠다고 밝혔다. 또한, 30일(수)~1월 1일(금)에 전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며 대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## [ 기압계 전망 ]

- 광주지방기상청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12월 29일(화) 밤부터 내년 1월 1(금)일까지 강추위와 함께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 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광주, 전라남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.
- 29일 밤부터 대륙고기압에 의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, 12월 30일(수)~1월 1일(금)은 5km 상공에 -30℃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추위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다.
- 이후, 1월 2일(토)~3일(일)은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, 4일(월)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월 초순에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.

## [ 추위 전망 ]

- 29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, 30일~1월 1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, 전남내륙이 -7℃ 안팎을 보이면서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.
- 특히, 30일은 낮 최고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, 3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광주, 전라남도 지역이 -7℃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.
- 또한, 이 기간(12. 30.~1. 1.) 동안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-10℃ 안팎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,
-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함은 물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했다.
  
- 1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약해지겠지만, 4~5일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고, 이후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.
-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추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”고 당부했다.

## [ 많은 눈 전망 ]

- 30일~1월 1일에 매우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고, 이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광주, 전라남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.
- 특히, 찬 공기가 유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**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, 30일 오후부터 31일 아침까지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** 예상된다고 밝혔다.
- **비닐하우스 붕괴** 등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,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용객들이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.
- 또한, 29일 광주, 전라남도에 비/눈이 내린 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이후에도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붙어 **빙판길**이 되는 곳이 많겠다면 보행자와 **교통안전**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.

### <12월 30일~1월 1일의 예상 적설>

- 광주, 전라남도: 10~20cm (많은 곳 전남서부 30cm 이상)
- 전남동부남해안: 3~8cm
- ※ 전남동부남해안: 여수(거문도, 초도), 광양, 보성, 고흥

※ 12월 29일의 예상강수량/적설은 16시에 발표되는 날씨해설과 동네예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-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다음 주에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강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해상에 눈 구름대가 발달하고, 이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광주,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5일부터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”고 덧붙였다.

## [ 강풍과 풍랑 전망 ]

- (강풍)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**29일** 밤부터 전남해안에 바람이 43~58km/h(12~16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.
  -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, **31일**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  
- (해상) 29일 오후에 서해남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남부앞바다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43~72km/h(12~20m/s)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2~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
  - 특히 30일에는 서해남부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를 중심으로 5m이상의 매우 높은 파고와 함께 72km/h(20m/s)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풍랑경보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,
  - 이번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남해서부해상은 31일 밤, 서해남부해상은 1월 1일 새벽에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
  - 특히, 서해상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해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했다.